



4면

우석대·군산대, 교육·연구·학술 교류 맞손'

2023년 4월 14일 금요일(윤 2월 24일) 제3243호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흥제로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13일 전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전북창업지원센터 내에서 열린 민간주도 스타트업 키움 공간(이하 키움 공간) 개소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국주영은 도의장, 양경준 크립톤 대표, 김정태 MYSC 대표, 민간투자사 등 출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민간주도 스타트업 키움공간 '문 활짝'

전주 원도심서 개소식… TIPS운영사 상주 유망기업 발굴부터 투자까지 종합 지원  
크립톤·MYSC 등 국내 굴지 TIPS 운영사 2개 유치… 키움공간 내 전북사무소 개소

민간투자사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키워 나갈 민간주도 스타트업 키움 공간(이하 키움 공간)이 전주 원도심에 문을 열었다.

13일 전북도·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창조센터)는 전북창업기업 지원센터 내에서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민간투자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키움 공간 개소식을 개최했다.

키움 공간 조성은 전북도가 올해 신규로 도입한 사업으로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업 스토어업 투자생태계 조성 모델로, 중기부가 선정한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운영사가 상주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양질의 멘토링과 네트워킹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거점 공간이며 전북창조센터가 전담으로 관리 운영한다.

TIPS란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키움 공간 개소는 그동안 지역 내에 TIPS 운영사가 단 한 곳도 없어 전문 영역을 공공주도로 추진하는데 한계

가 있는 상황에서 스타트업 발굴부터 보유 투자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투자사를 유치해 조성하는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이를 위해 김관영 도지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민간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10년 넘게 100여개사 이상의 기업에 투자해 성공사례 경험이 있는 민간투자사이다 TIPS 운영사인 크립톤과 MYSC가 전북에 사무소를 개소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크립톤과 MYSC'는 키움 공간에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들을 연 20여개 이상 발굴해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 노하우를 펼쳐 실패 부담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중 2개사 이상에게는 직접 각각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중기부 TIPS 기업으로 추천하며,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시 R&D 멘토링, 해외 마케팅, 판로 등 8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전북도는 TIPS 운영사에게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홍보, 투자 IR(Investor Relations) 기업이 주식 및 사채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 등에 따른 일부 활동경비를 지원해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키움 공간과 함께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1조 규모의 펀드 운영 등을 추진해 기업기지 1,000억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 기업 배출 등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 확대 및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키움 공간 개소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이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고 창업을 꿈꾸는 이들 이 찾았던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3월 초에 민선 8기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민선 8기 4년동안 1조원 규모 투자펀드 조성을 비롯해 스타트업비문 조성, 해외 스타트업 유치 등 5대 전략 20대 과제를 추진해 기업기지 1,000억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10개사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밟힌 바 있다.

/김재훈 기자

국민연금·한국은행, 350억  
달러 외환 스왑 한도 합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환해지 비율 상향에 따른 해지 수단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왑거래 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외환스왑거래는 통화 교환형식 이용 단기적인 자금 유통 계약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체결한 한국은행과의 100억 달러 한도 외환스왑거래 기한이 2022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스왑거래 한도를 신규로 설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외환 스왑 거래 한도 추가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전북특자도 새 단장 '한창'

도, 정비 대상 전수조사·종합계획 수립 등 준비 본격화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됨에 따라 명칭 변경 및 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전북도는 올해 3월부터 각종 표지판, 건물 현판, 종합안내도, 지도, 갓발, 웹사이트 등 정비 대상을 전수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누락 사항 점검과 소요 예산 파악 등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4월 중에는 '명칭 변경 및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있을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범 전까지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과 미비사항 보완 등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민선식 특별자치도주간단장 겸 정책 기획관은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 불편을 방지하고 원활한 행정시스템 가동에貢을 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에서도 내년 1월 출범에 맞춰 명칭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내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도 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1896년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분리된 이후 128년만이다.

/김재훈 기자

## 소외 없는 스포츠복지 실현

을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전주·남원 선정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년 반다비체육센터 공모 사업에 전주시와 남원시가 선정돼 국비 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1차 사업으로 고창군이 선정된 후 추가 선정 견으로 이에

도는 2023년도 사업으로 전주 40

억, 남원 30억, 고창 40억원 등 국

비 총 11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로 문체부는 2027년까지 전국에 반다비체육센터 150개 건립을 목표로 올해까지 총 89개 건립 지원을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